

“시댁 가풍 익히고 한국 음식도 척척... 설날 기다려져요”



광주시 남구 월산동 다문화 가정 나상현·김사랑씨 가족이 설을 맞아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상현씨, 현민·교협군, 김사랑씨, 혜련양.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베트남 며느리 13년차’ 광주 남구 김사랑씨

한국 기업서 만난 남편에 반해 13살 나이차도 극복
김치보다 적응 힘든 건 이주여성 보는 불편한 시선
동포들 향수 달래줄 쌀국수·베트남 식품 가게 운영
“모국도 1월 1일 ‘뗏’ 명절... 설날이면 고향생각 절로”

광주 남구에 사는 베트남 이주여성 김사랑(34)씨는 억척 아줌마다. 음식이면 음식, 자녀 양육이면 양육, 집안 살림도 척척해내는 주부 9단이다. 베트남에서 남편 나상현(47)씨를 만나 한국에 시집 온 지 13년차. 우리 말도 능숙하다. 그뿐이라. 6년 전부터는 집안 살림에 보태겠다며 월산동 집 근처에 베트남 식품 가게도 열었다. 가게는 작고 허름하지만 주변에선 “한국 여자도 저렇게 못한다”며 혀를 내두른다.

지난 27일 월산동 가게에서 만난 그는 “이 모든 게 남편이 지켜주고 살뜰히 챙겨줘서 가능한 일”이라고 남편 얘기부터 꺼냈다. 남편이 사랑해줘서 없는 살림에도 하루하루가 신나고, 매사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다. 남편과 가족 얘기를 하는 그의 얼굴은 평온하고 눈은 종종 빛났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 주부들 사이에선 “명절이 두렵다”, “기름 냄새조차 맡기 싫다. 명절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이 나오지만 그는 어서 빨리 설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주저 없이 말했다.

설, 추석과 집안 제사 등을 매년 지내며 한국 풍습과 시댁 가풍을 익혀 이제는 명절을 준비하는 게 어느 정도 손에 익었지만, 올 설에는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 시댁 어른들과 남편 마음에 꼭 드는 며느리이자 아내가 되고 싶다는 게 그가 명절

을 기다리는 이유다.

김씨도 여느 집처럼 설이면 떡국을 끓이고 전과 나물, 생선, 고기, 과일 등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다. 설 아침이면 남편과 함께 아들 교협(13)·현민(5)군, 딸 혜련(11)양의 손을 잡고 근처에 사는 시아버지 댁을 찾는다. 남편 형제들과 함께 준비해온 음식을 상에 올리고 차례를 지낸다. 시아버지 등 시댁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고, 자녀와 조카들로부터 세배를 받는다. 한국에서 맞는 13번째 설인데다 그의 모국 베트남에도 음력 1월 1일에 맞춰 지내는 명절이 있어서인지 설 명절이 낯설지 않다고 한다.

김씨는 “날씨 탓인지 한국의 설은 추운 겨울이라 가족 친지들이 모두 모여 집안에서 보내는 것 같다. 하지만 베트남 설(베트남에선 뗏이라 부른다)은 연휴동안에는 아침기온만 쌀쌀하고 낮에는 한국의 가을 날씨 정도라 외부 활동하기가 좋아 가족 단위로 축제 같은 명절을 보낸다”며 베트남 명절 문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애들을 낳아 기르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시집 온 뒤 아직 고향에 가보지 못했다. 가족 모두가 잘해주시지만 매년 명절이 되면 절로 고향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김씨는 13년 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게임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직원으로 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사랑을 키워왔다고 한다. 21살 나이에 남편과 나이 차이도 컸지만 남편이 남자답고 너무 멋져 보여서 한눈에 반해 결혼까지 결심했다고 한다. 연애 끝에 들은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3년 전인 2006년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광주로 와서 난생 처음 먹게 된 김씨는 여전히 적응하기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더욱 힘든 것은 이주여성 등 외국인들을 자연스럽게 보지 않는 ‘불편한 시선’은 지금도 그를 힘들게 한다. 다짜고짜 “어디



김사랑씨가 월산동 집 근처에서 6년째 운영중인 베트남 식품 가게.

에서 왔느냐”는 사람부터, “베트남에서 왔어요”라고 하면 “왜 한국 왔어? 결혼은 했어? 거기엔 남자가 없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뱉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적응했다. 우리 아이들이라도 내가 겪었던 불편한 시선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씨는 세 아이를 낳고 기르며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한국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써왔다. 남구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한글 배우기 프로그램 등 이주여성을 위한 강좌를 꾸준히 들었다. 믿고 응원해주는 남편 덕분에 말과 글 실력이 쑥쑥 올라왔다. 베트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모 아래서 컸던 탓인지 한국 음식도 금세 배웠다고 한다.

한국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그는 남편과 상의한 후 집 근처에 ‘베트남 해산물 쌀국수집’을 열었다. 찬바람 맞고 썩서비스를 하며 외벌이하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용기를 냈다. 베트남 이주민들은 많은데, 전통 음식과 식재료를 맛보거나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에서 같은 동포를 위한 마음도 작용했다.

가게는 비좁고 허름하지만 김씨는 6년째 한자리서 가게를 열고 있다. 주변에서 “뚝순이 아줌마, 열정과 용기가 대단하다”는 칭송이 나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